

수원박물관에서 열리는 한-중 자매도시 서예교류전

등록일 : 2015-08-03 12:56:36 | 작성자 : 시민기자 한정규

제1회 한·중 서예교류전이 '한중우호 유평진작' 韓中友好 儒風振作이란 주제로 한국서예박물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수원서예가총연합회 회장 채순홍에서 주최하고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후원하는 한중 서예교류전은 올해 1회를 맞았는데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 전시의 풍격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작가 1명과 중국작가 10명이 참여해 작품을 출품했다.



중국작가들의 서예작품

·월 1일 오전에 열린 개막식에서 중국 지난시 서예가협회 양빙원 회장은 “중국의 한자 서예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서예는 중국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기도 합니다. 또 고대로부터 내려온 여러 종류의 탁본과 서체는 고대의 한자 예술이 오천년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지금까지 찬란한 문화로서 계승되어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모두 한자를 사용한 민족으로 이를 존중하며 이를 높이 여기고 대대손손 물려 줄 가치 있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작가들의 그림작품

염태영 수원시장은 서예는 동양문화의 아름다움을 심오하게 표현하는 예술의 하나로 특히 한국과 중국의 역사와 민족 문화 그리고 삶의 철학을 보여주는 전통 문화 예술입니다. 그동안 두 도시의 전문 서예가들의 창작 활동과 적극적인 교류는 두 도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적 이해 및 우호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 중 서예교류전을 통하여 수원시와 지난시의 서예 작가 여러분의 담겨 있는 정신과 예술적 미학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고 앞으로도 서예 문화교류 증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라고 축사를 했다.

『서여기인』書如其人』이란 말이 있다. 서예는 그 사람이라는 뜻인데 서예를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예 수련을 통해 예술작품을 완성해 가기도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수양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서예 인구 천만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서예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많다. 서예를 통해 품격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작가들의 작품

전시된 한중 작가들의 서예작품을 보면 양국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였다. 기본적으로 작품의 크기가 비슷하고, 내용도 한시, 송어구 등을 전서, 행서나 초서로 써 평이해 보였지만, 한중 작가들의 그림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 작가들의 작품은 대부분이 사군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중국 작가들의 작품은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등 우리나라 작품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자연경관이 다르기에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도 다르지만, 같은 한자로 쓰는 서예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 중 작가들 작품

“왼쪽에 두번째 작품, 송어 학이편, 수원서예가총연합회 채순홍 회장”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군자식무구포 거무구안 민어사이신어언 취유도이정언 가위호학야이.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먹는 것에 배부름을 구하지 아니하며, 거처하는 것에 편안함을 구하지 아니하며, 열하는 데에는 민첩하고 말하는 데는 조심하며, 도 있는 자에게 나아가서 질정한다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말할 것이다.

“오른쪽 첫번째 작품, 당나라 상견 시, 서예박물관 양택동 관장”

晨入古寺 初日照高林 曲徑通幽處 禪房花木深 山光悅鳥性 潭影空人心 萬籟此都寂 但餘鐘磬音. 청신입고사 초일조고림 곡경통유처 선방화목심 산광열조성 담영공인심 만리차도적 단여종경음. 맑은 새벽녘에 옛 절에 오르니 막 뜨는 해가 높은 숲을 비추는데 굽이진 길은 그윽한 곳에 통해 선방에는 꽃나무 우거져 있다. 산빛은 새의 본성 기쁘게 하고 못의 그림자는 사람 마음 비운다. 천지의 모든 소리 다 고요한데 들리는 것 다만 풍경소리 뿐이다.

제1회 한중 서예교류전은 일까지 계속된다. 수원박물관은 무료입장을 할 수 있으니 격조 있는 서예작품과 문인화를 감상하면서 더위를 잊어보면 어떨지.